



Delicious Chicken

단순, 무뚝뚝, 과격함
'양재닭집' 으로 오세요



조 해 인 기자

양재역 파출소 옆 한 닭집에 도착했다. 지하 1층. 오래된 듯한 건물의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여니 한켠엔 방앗간, 뒤편엔 불꺼진 시장통. 그런데 그중 유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닭집. 그렇게 닭집이 전세라도 낸 양 시장통 한쪽을 쓰고 있다.

필자는 이런 콘크리트로 지어진 지하장터도 오랜만인데다 실내인지 실외인지 모를 이 곳에 식탁이 놓여지고, 나몰라라 맛있게 닭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광경에 더 놀랐다.



- ① 메뉴는 오로지 '맛있는 치킨' 하나 밖에 없다.
- ② 재래식 튀김 솥에서 튀겨지고 있는 닭고기

단순한 메뉴구성. 통닭뿐!

‘어라?! 후라이드 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10여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는다. 주인양반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그저 닭을 꺼내 물에 씻고 식칼을 꺼내 나무도마에 올려 툭툭 썬다. 우리 것이 주문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게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 닭을 저렇게 조리하는 광경을 너무 오랜만에 본지라 그것을 구경하며 함께 간 지인들과 80년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80년대 어린 시절,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켄터키후라이드치킨이 찍힌 노란 종이 가방(지금은 서류봉투용 재질)을 들고오시던 아버지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동행한 일행 중 한 명은 유사한 기억이 있지만 다른 한 명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 우리 이야기를 아주 옛날이야기인냥 그렇게 듣고 있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 그 맛이 무척 그리운 때다.

무뚝뚝한 주인에게 “닭 한 마리 주세요~”

그런데 왜 주문을 안 받는 것인가. 주인장은 무뚝뚝하며 손님이 와도 관심이 없다. 어찌된 일이지? 사진을 찍는 척 하고 주인장에게 말을 건네며 닭 튀겨지는 모습을 좀 찍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소심하게 한마디 더 한다. “저희 닭 한 마리 주문합니다.”

사진을 찍고 자리에 와서 일행에게 말했다. 닭을 안 줘서 사진찍으면서 말을 했으니, 기다려 보자고. 그때 이 닭집을 소개해준 이에게 전화가 왔다.

“집에 가다가 생각났는데, 양재닭집은 주문, 서빙 모두 다 셀프예요. 말 안하면 안줍니다.”

이런 황당한 곳이 있다. 서비스 좋기로 소문난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

과격한 칼놀림이 빚어낸 즉석 후라이드 치킨

이곳 이름은 양재닭집. 상호부터가 무척 튀다. 시간이 지나 모두 간판을 바꾸는 동안 그대로 지켜왔나보다. 위치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내려 매봉역 방향으로 가다가 육교 밑에서 골목으로 우회전하면 파출소 옆에 있다.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가 1만원이지만 주문에서 서빙까지 손님이 직접 해야 한다. 그러나 요리는 주인이 해준다.

전화만 하면 맛있게 튀겨 예쁘게 포장해 달려오는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투박하고 푸짐하며, 주문즉시 통닭 한 마리를 냉장고에서 꺼내 식칼로 잘라 그대로 버무리 튀긴 후라이드 치킨. 그 광경을 보는 것도 어찌면 한 볼거리가 됐다.

주문이 늦어서인지 우리 것은 유난히 늦게 나왔다. 문 앞에 앉은 터라 다른 손님들이 드나드는 것을 유심히 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저씨! 닭 한 마리요~”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며 자리를 잡고 무절임, 음료수, 술, 포크, 양념까지 손수 날라 먹고 있었다.

바삭한 식감, 푸짐한 양

이런 저런 담소끝에 나온 통닭 튀김 한 마리는 어디에서 먹었던 후라이드 치킨보다 바삭하고 고소하다. 이 과자같이 바삭하고 고소한 식감을 왜 프랜차이즈점에서는 낼 수 없는지 모르겠다. 무슨 기름으로 튀겼고, 어떻게 해서



③ 바삭하고 고소한 식감을 자랑하는 후라이드 치킨 양 또한 푸짐하다.

맛있다는 광고는 즐비하지만, 왜 이 맛이 나지 않는 걸까.

카레가루가 조금 들어갔는지 느끼함도 없고, 무엇보다 그 양이 푸짐하다. 회사 동료와 셋이서 야근때 종종 먹었던 프랜차이즈 치킨은 한 마리로는 허전했는데, 양재닭집 닭튀김은 한 마리로는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도 1조각이 남았다. 그래서인지 스타일은 80년대이나 배고프고 지갑 얇은 젊은이들이 북적인다.

정말 배고픈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곳. 양재닭집이다. 🍗

• 메뉴 : 후라이드 치킨 10,000원

• 전화 : (02)572-1741

• 위치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5번 출구에서 매봉역 방향으로 직진. 육교 밑에서 양재종합시장 방향으로 우회전 후 파출소 옆